

- 직원 역량강화 위한 정례 세미나 개최 -
- 대한전기협회, 5월부터 시행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는 직원 상호간의 지식 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해 5월부터 정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협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경영, 취미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매주 각 부서별로 순환하여 시행되며, 필요시 외부 강사도 초빙해 열게 된다.

5월 18일에는 전기협회 박상덕 전무이사가 'Strong KEA'라는 주제로 개인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강력한 협회'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5월 25일은 전기협회 이종섭 기술처장이 '내 직장, 내 협회를 사랑하자'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 전력산업 이동홍보관 운영 -

제5회 전력산업 이동홍보관 행사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린 '2009 국제전력IT 및 전기설비전'에 참여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회장 최광주)와 KOTRA(사장 조환익)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9 국제전력IT 및 전기설비전'은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 글로벌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관한 약 2만여 명의 관람객들은 전력산업 이동홍보관을 돌아보며 각종 전원별 발전 원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표명과 함께, 특히 신재생 에너지 동향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는 등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경쟁체제가 도입된 전력산업의 시장운영현황 등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한편, 직접 자전거 페달을 돌려 생산된 전기로 가전제품을 작동시켜 보는 등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함께 전시된 전기자동차에도 많은 발길이 이어져 친환경 녹색성장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외국인 바이어들도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의 기술력에 대한 찬사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전기사랑 축구리그, 전기협회 1위-

대한전기협회는 전기계 단체로 구성되어 전기인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열리는 '전기사랑 축구리그'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기사랑 축구리그'는 대한전기협회를 비롯해 전력기술인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기신문사 등 4개 단체가 리그전을 펼치는 경기이다.

